

폐가에 방치 고양이 21마리 구조...“동물수집꾼 엄벌을”

광주시 캣맘협의회, 구조·보호...‘동물수집꾼’ 의한 방치·학대 추정

“반려동물 관리 제도·처벌 법규 정비 시급...특별사법경찰 도입을”

광주의 한 재건축 예정 아파트 단지 내 폐가에서 수년간 각종 오물 더미에 방치돼 있던 고양이 20여 마리가 구조됐다.

구조에 나섰던 동물 보호 단체는 동물수집꾼(애니멀 호더·animal hoarder)에 의한 학대 행위를 주장하며 관련 제도 정비·처벌 강화를 촉구했다.

비영리 동물 보호 민간단체 ‘광주시 캣맘협의회’는 지난해 12월 29일부터 이틀간 광주 북구 운암 3단지 재건축 예정 아파트 내 한 폐가에 방치된 고양이 21마리를 구조했다고 4일 밝혔다.

구조 당시 고양이들은 최소 4~5년간 배변·사체 등 오물 더미에서 생활했던 것으로 추정됐다. 대부분 사료를

제대로 먹지 못해 영양 상태가 좋지 않았고 오염된 환경 속에서 피부 질환도 확인됐다.

중성화 수술을 받지 못한 일부 수컷 고양이에 의해 무분별한 번식이 이뤄져 사육 환경이 악화된 것으로 혐의회는 봤다.

해당 아파트 단지는 지난 2014년 이후 수도·전력 공급 등이 끊긴 철거 예정 주택이나, 고양이 주인으로 추정되는 A씨가 월세 임차 형식으로 빌린 것으로 전해졌다.

앞서 한 지역 정신보건 상담기관은 A씨가 더 이상 고양이를 돌볼 수 없다고 판단, 관할 자치구인 북구에 도움을 요청했다. 이후 관련 문제를 논의하는 과정에서 혐의회가 직접 구조에

나섰다. 동물보호법상, 학대 동물은 지자체가 소유자로부터 분리해서 구조 조치로 보호소에 입소시킬 수 있지만, 혐의회는 고양이 건강 상태·효과적인 보호 조치 등을 고려해 구조하기로 했다고 설명했다.

현재 구조된 고양이들은 혐의회가 마련한 회복실에서 수의사로부터 치료를 받고 있다.

단체는 A씨가 정신 상태가 불안정하며 ‘애니멀 호더’ 성향이 두드러진다고 밝혔다.

애니멀 호더는 동물을 모으는 것에 지나치게 집착하면서도 기르는 일에는 무관심해 방치하는 사람을 가리킨다.

혐의회는 “절대 반려 동물을 키우는 안 되는 사람이 이성적 사고·질제를 할 수 없는 상황에서 또다시 이런 일이 발생했다”며 “동물등록제가 정상적으로 시행되고, 관할 지자체가 정기적으로 관리했다더라면 없었을 일이다”라고 밝혔다.

또 “애니멀 호더에 의한 반려동물 수집·학대 행위를 막는 방법은 반려동물 등록제, 부적격자에 대한 반려동물 사육·소유권 강화 뿐이다”라고 밝혔다.

그러면서 “반려동물을 키울 수 있는 조건을 확실히 규정하고 위반 시 소유권을 박탈해야 한다. 또 동물 학대자들에 대한 처벌이 한층 더 강화돼야 한다”며 “지자체 행정 공무원이 고발권·수사권을 갖는 동물학대 관련 특별사법경찰 제도를 도입하는 것이 시급하다”고 강조했다.

한편, 반려 목적으로 기르는 동물의 사육공간 제공과 위생·건강관리 의무를 위반해 다치거나 질병에 걸리면



비영리 동물 보호 민간단체 ‘광주시 캣맘협의회’는 지난해 12월 29일부터 이틀간 광주 북구 운암 3단지 재건축 예정 아파트 내 한 폐가에 방치된 고양이 21마리를 구조했다고 4일 밝혔다. 혐의회는 동물수집꾼(애니멀 호더·animal hoarder)에 의한 방치·학대 행위를 주장하며 관련 제도 정비·처벌 강화를 촉구했다.

‘동물학대’행위로 간주, 2년 이하의 징역 또는 2000만원 이하의 벌금에 처한다.

또 학대 받은 동물은 애니멀 호더로부터 구조·격리돼 보호 조치를 받을 수 있다. 신봉우기자

‘광주 요양병원발 연쇄감염’ 3명 추가...누적 68명

감염경로 불분명 확진자 1명 추가...광주 누적 1215명



신종 코로나바이러스 감염증(코로나19) 확진자가 집단 발생한 광주의

한 요양병원에서 3명, 감염경로 불분명 1명 등 지역에서 총 4명의 감염자가 추가됐다.

4일 광주시 방역당국에 따르면 이날 오후 2시 기준 광산구 효정요양병원 관련 코로나19 확진자 3명과 감염경로 불분명 확진자의 접촉자 1명 등 총 4명이 추가 감염됐다.

이들의 확진자 번호는 광주 1212~1215번으로 부여됐으며 격리병상으로 옮겨져 치료를 받고 있다.

광주 1212번과 1213번·1215번은 최근 지역의 집단감염지인 광산구 효정요양병원 관련이다.

1212번·1213번 확진자는 요양병원 종사자와 가족이며 1215번은 확진자

와 광주의 한 교회에서 접촉한 지인이다.

이로써 효정요양병원 관련 감염자는 지난 2일 7명에서 3일 58명, 4일 3명 등 68명으로 늘었다.

감염자 68명 중 요양병원 환자는 53명으로 분관 2층 51명, 1층 입원환자 2명이다. 종사자는 11명과 가족 4명이 감염됐다.

광주 1214번 확진자는 지난 2일 감염이 확인된 1113번 관련이며 방역당국은 심층 역학조사 등을 통해 감염경로를 파악하고 있다.

방역당국 관계자는 “효정요양병원 환자 확진자들은 타병원으로 순차적으로 옮기고 있으며 감염자가 나오지 않은 병동의 환자는 동일집단 격리하고 있다”고 밝혔다.

김미희기자

‘녹화영상 유포 협박·연애빙자 송금’ 사이버범죄 주의

코로나19 확산에 따른 온라인 매체 이용시간 증가로 디지털 성범죄를 비롯한 비대면 사이버 범죄에 대한 각별한 주의가 요구된다.

전남경찰청은 3일 목캠프싱, 로맨스 스캠, 이메일 무역사기 등 일부 사이버 범죄가 증가세를 보였다고 이 같이 밝혔다.

전남 지역 목캠프싱 발생 건수는 2019년 50건에서 지난해 97건으로 2배 가까이 늘었다.

전국에서 발생한 목캠프싱 현황도 2015년 102건에서 2019년 1824건으로 4년새 17.8배 증가했다.

목캠프싱은 동영상 유포 협박과 휴대전화 해킹이 결합된 범죄다. 범인들은 채팅앱 등으로 피해자에게 접근, 영상통화로 함께 음란행위를 하자고 유도한 뒤 이를 녹화한다.

이 과정에 화질·음질이 나쁘다며 영상통화 품질 개선용 ‘허위 프로그램’을 보낸다. 피해자가 스마트폰에 해당 프로그램을 설치하는

순간 악성코드가 자동으로 깔린다. 관련 정보를 모두 빼낸 뒤 피해자의 음란행위 영상을 피해자가족·지인에게 전송하겠다고 협박, 금품을 빼앗는 수법이다.

로맨스 스캠은 사회관계망서비스(SNS)에서 신뢰를 쌓은 뒤 연애·결혼을 빙자해 각종 명목으로 돈을 뜯어내는 사기 범죄다.

주요 해외 SNS나 메신저 등으로 피해자에게 접근, 해외 과병 중인 미군·UN군·정보기관 요원 등을 사칭한다.

피해자와 친분·신뢰 관계를 맺고 자신이 관리하는 비자금·전쟁자금·보석 등을 한국으로 빼돌리는데 보관·운송·수수료 등이 필요하다고 외국 은행 계좌로 돈을 송금받으라고 한다.

로맨스 스캠 주요 수법은 ▲인사말 나눈 뒤 채팅앱 아이디 요구 ▲신분·사진·경력 위장 ▲연애·결혼 빙자한 교제 요청 ▲신뢰 형성 뒤 금품 요구 ▲딱한 사정을 언급하며 동정심 유발 등이다. 최이슬기자

‘잠적하고 숨기고’ 전남 BTJ열방센터 확진자 24명

현재까지도 검사받지 않은 6명 추적 중

전남에서도 선교단체인 경북 상주의 BTJ열방센터 관련 코로나19 확진자가 24명 발생한 가운데 방역당국이 ‘숨은 방문자’ 추적에 주력하고 있다.

4일 전남도에 따르면 지난달 25일 광양의 노인돌봄센터 사회복지사 A

씨가 전남도가 실시한 고위험군 종사자 전수검사에서 코로나19 확진 판정을 받았다. 전남도가 구축한 촘촘한 방역망이 ‘숨은 확진자’를 찾아낸 것이다. 이때까지만 해도 전남에서는 BTJ열방센터의 실체가 확인되지 않

았다. 전남도가 A씨의 감염경로를 역추적한 결과 같은 교회를 다니고 있는 교인들이 경북 상주의 BTJ열방센터에 방문한 것을 확인했다.

이후 접촉자 검사에서 26일 2명, 27일 5명, 28일 2명, 30일 4명 등 BTJ열방센터 관련 확진자가 속출하기 시작했다. 전남도가 중앙재난안전대책본

부로부터 BTJ열방센터를 방문한 전남 지역 교인 명단을 전달받은 것은 지난달 31일로 첫 환자가 나온 뒤 7일 만이다.

전남지역 BTJ열방센터 방문자는 총 124명으로 현재까지 118명이 검사를 받아 24명(방문자 7명, 접촉자 17명)이 확진됐다. 아직까지 검사를 받지 않은 6명 중 4명은 경찰 협조를 받아 조만간 검사를 받게 할 예정이고, 나머지 2명은 신원을 추적 중이다.

신문인쇄 전문기업 (주)남도프린테크

(주)남도프린테크는 신문사 법인설립, 신문발행업 등록, 편집, 인쇄까지 토탈 서비스 가능한 업체입니다.

믿고 맡겨주시면 성실하게 최선을 다하겠습니다.

- 광주·전남 최초로 신문윤전판 출력시스템 도입
- 월등한 색상 구현력에 더러움 현상은 최소화!
- 최상의 인쇄 품질로 고객 만족을 실현하겠습니다

(주)남도프린테크

광주광역시 광산구 평동로803번안길 93-10(용동) 평동산단 3번도로 끝
Tel : 062)943-0135~6 Fax : 062)943-0134 담당자 : 010-2656-4747(장상문 전무)

